

『東京雜記』와 詩的 공간으로서의 慶州

이 미 진*

- I. 들어가기
- II. 『東京雜記』간행과 漢詩
 - 1. 간행 경위 및 수록 내용
 - 2. 한시 수록 현황
- III. 詩的 공간으로서의 慶州
 - 1. 신라 고려시대의 경주
 - 2. 조선시대의 경주
- IV. 『東京雜記』에 수록된 한시의 기능과 의미
 - 1. 역사 기록으로서의 한시
 - 2. 유교 윤리 보급을 위한 한시
 - 3. 在地士族의 주관이 개입된 한시
- V. 남은 문제

국문초록

본고는 17세기에 간행된 경주의 대표 邑誌 『東京雜記』에 수록된 한시를 통해 詩的 공간으로서의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시대별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지나는 한시의 기능과 의미를 탐구한 것이다. 『동경잡기』는 이전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체재와 내용을 기초로 하여 1669년에 慶州府尹 閔周冕(1629-1670)이 당시 경주 지역 사람 李琛 金建準 등과 함께 간행한 것

* 경북대학교 강사 / mijin8080@hanmail.net

으로, 역사 행정 군사 경제 인물 등 경주에 대한 각종 정보를 망라하고 있으며 총 3권 4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9항목 중 13항목에 한시가 인용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題詠》조항에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크게 신라·고려시대의 경주를 읊은 작품과 조선시대의 경주를 노래한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라·고려시대의 경주는 신라의 遺風과 역사를 회고하면서 옛 왕조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 혹은 망국에 대한 회한과 설움 등이 녹아든 ‘신라 古都로서의 역사적 공간’으로, 조선시대의 경주는 전왕조의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金時習의 『金鰲新話』 창작과 연결시켜 ‘문학 생성의 공간’, 晦齋 李彦迪 관련 공간을 소개함으로써 유학 흥성을 염원하는 ‘유교적 공간’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한시는, 첫째 역사 기록의 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 나열식 지리 정보에다 한시를 적절히 인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題畵의 기능을 겸한 詠史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교 윤리의 보급 차원에서 수록된 한시가 많다.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창작된 작품이 대거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의 전파·보급과 맥락이 닿아있다. 셋째, 한시문 선별 과정에 경주 지역 재지사족들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간행을 주도한 경주부윤과 당시 경주 내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북부지역 사족을 중심으로 내용의 가감과 작품 선별이 이루어져 이들과 관련있는 인물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주제어

『東京雜記』, 慶州, 邑誌, 地理誌, 閔周晷,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在地土族

I. 들어가기

『東京雜記』는 17세기에 간행된 경주지역 읍지이다. 東京은 경주의 별칭으로 高麗 3京의 하나인 東京에서 유래하며 東都라고도 불리웠다. 과거 경주에 대한 한문학 관련 기록은 신라 역사 및 전설 신화 등과 관련하여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경주에서 활동한 신라 최치원이나 경주 금오산을 배경으로 지어진 조선초 김시습의 『金鰲新話』에 주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역대 많은 문인들이 경주 유람 시 東都 혹은 東京이라는 명칭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문학 장르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문집이나 시선집, 혹은 단행본으로 남겨진 유람록 등 다양한 형태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주에 대한 한문학 작품은 지리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조선조 대표적인 관찬지리서 『新增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府》에는 많은 수의 한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 경주가 신라 古都로서 왕과 관련한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어 체영이 자연스레 풍부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수록된 한시 면면을 살펴보면, 왕조는 달리하지만 전왕조의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조선 왕조와 연결시킨 부분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에 간행된 경주의 대표 읍지인 『동경잡기』에도 역시 이러한 작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에는 지방 도시로서 명맥만 유지한 채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 세종 신해년(1431)에 태조의 御影을 보관하는 集慶殿이 경주에 설치되면서 개성의 穆淸殿, 영흥의 璿源殿, 전주의 慶基殿과 함께 조선 4대의 御眞이 봉안된 지역 중 하나였다. 또한 경주는 땅이 넓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까닭에 이곳에 파견되는 지방관은 주로 近臣 중에서 선정하였을 만큼 조선조 중앙에서도 경주를 古都로서의 상징성을 간직하고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¹⁾ 이렇듯 조선시대

1) 조철제, 「조선시대 경주의 오리수와 보문평 소고」, 『신라학연구』4, 위덕대학교 신라학

의 경주는 신라 왕조만큼 변형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영남 지역에서 한문학의 주요 소재가 되는 곳이자 문화수용의 거점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학공간으로서의 조선시대 경주’에 주목하되 경주지역 읍지 『동경잡기』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를 통해 지역 한문학 연구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타진해보려 한다. 읍지는 지역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사료 중 하나로서, 여기에는 해당 고을의 연혁 정치 경제 풍속 산천 고적 인물 등에 대한 기록 뿐 아니라 설화나 구전, 한시 등 문학관련 기록도 수록되어 있다. 문학서가 아닌 읍지에 수록된 한시에 주목하거나, 지리학이나 서지학이 아닌 한문학 차원에서 『동경잡기』에 접근한 바는 아직 학계에서 시도된 적 없다. 이에 본고는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그 방법론을 타진해보고 향후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시론성 글이 될 것이다. 『동경잡기』는 ‘경주’라는 공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신라~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내용을 두루 수록하고 있어 통시적으로 경주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큰 장점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 창작공간으로서의 경주가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도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동경잡기』에 수록된 한시를 통해 詩的공간으로서의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시대별로 파악하는 한편, 읍지 내 한시가 지닌 기능과 그 의미를 탐구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II. 『東京雜記』간행과 한시

1. 간행 경위 및 수록 내용

1530년 조선 중종대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승람』으로 약칭)

연구소, 2000, 260쪽 참고.

은 이후 고을 단위로 이루어진 읍지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 경상도 16종, 한성부 1종, 충청도 5종, 강원도 7종, 경기도 3종, 황해도 2종, 평안도 5종, 함경도 4종, 전라도 9종 등 각 고을 읍지의 간행이 확대되는데, 이들의 기본적인 체제는 『승람』을 따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통합되는 방식으로 대개 40여개의 조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상도의 경우 경주, 상주, 안동, 진주, 동래, 성주, 선산, 밀양 등 대邑에서 읍지가 만들어 졌다. 대읍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문화 수용의 일차적 거점지가 될 수 있었고, 품계가 높은 지역에는 직위가 높은 수령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대읍에서 편찬된 읍지는 기본적으로 공신력을 지니고 있었다.²⁾

경주에 대한 읍지는 발간시기 및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530년 간행된 『승람』내 《경주부》에 대한 기록이 경주 읍지의 원형이고, 본고에서 다룬 1669년 간행된 『동경잡기』가 그 다음 형태이며, 1930년대에 간행된 『慶州邑誌』, 『東京通誌』, 『金鰲勝覽』 등 세 종의 읍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의 경주’ 모습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바로 『동경잡기』이다. 『승람』은 조선 개국초기에 간행된 것이라 선조 이전의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1930년대 간행된 경주의 읍지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 간행된 것으로 당시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에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즉, 『동경잡기』는 『승람』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오되 간행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보완된 항목이 적지않아 내용이 풍부한 편이며 한시문 또한 추가 수록됨으로써 신라~조선의 경주 모습을 담아낸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동경잡기』의 구체적인 간행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669년(현종10) 경주로 부임한 부윤 閔周冕(1629-1670)이 당시 경주지역 進士 李塚(?) 金建準(1627-1688) 등과 함께 최초로 간행한 이래, 이후 1711년에

2) 16, 17세기 경상도 읍지 간행과 관련한 정보는, 양보경의 「지리지의 나라, 조선」(국립중앙도서관 편, 『지리지의 나라 조선』, 2016, 86쪽)을 참고하였다.

부운 南至薰(1653-?)이 기존의 것을 그대로 重刊하였으며, 이듬해 1712년 부운 權以鎭이 《刊誤》를 붙여 다시 인출하고, 1845년(헌종11)에 부운 成原默(1785-1865)이 내용 일부를 補正하여 改刊하였다. 이후 이것을 1910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성원묵의 三刊本을 인쇄본 형태로 간행하였고 1913년 최남선이 주관하던 朝鮮光文會에서 또다시 활자본 형태로 중간하였다. 그러다 1930년대에 이르러 전면적인 증보가 이루어졌는데, 1933년 崔浚이 경주 향교에 都監을 설치하여 崔南善과 鄭寅普 등이 『東京通誌』7책을 간행하였고, 같은 해 강동면에서 『慶州邑誌』4책이 간행되었다. 이후 3년 뒤 『金鰲勝覽』4책이 다시 편찬되었고, 1961년에는 李銀雨와 鄭柄燦 등이 『동경통지』에 수정을 더하고 氏族考를 첨부하여 『東京續志』를 발간하였다. 이와 같이 최초 간행 이후 여러 대를 거쳐 수차례의 增刊이 있었으며 1669년 『동경잡기』최초 판본을 기준으로 서문, 발문, 후지 등의 수록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수록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정 문중간 이권 및 세력다툼과 관련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첨삭은 종종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³⁾

『동경잡기』의 체제는 기본적으로『승람』권21 《경주부》의 그것을 유지하되, 항목과 수록내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지로써의 특색을 부각시켰다. 총 3권 49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래는『승람』과의 항목 비교를 위해 표로 정리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내 《경주부》 총 22항목⁴⁾ : 建治沿革(屬縣, 鎭管, 官員),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城郭, 關防, 烽燧, 宮室, 樓亭, 學校, 驛院, 橋梁, 佛宇, 祠廟, 陵墓, 古蹟, 名宦, 人物(寓居, 孝子, 烈女), 題詠 등 22항목

3) 이상 동경잡기』의 간행 정보와 관련해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DB(kyujanggak.snu.ac.kr) 내 김은정이 작성한 ‘동경잡기’ 해제와 조철제의 「동경잡기의 편찬동기와 속간」(『국역 동경잡기』, 민속원, 2014, 448-467쪽) 및 전덕재의 「동경잡기의 편찬과 그 내용」(『국역 동경잡기』, 민속원, 2014, 468-477쪽)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4) 『승람』전체가 아닌 권21 《경주부》에서 제시한 항목만을 의미한다.

『동경잡기』총 49항목

권1 : 辰韓紀, 新羅紀, 慶州地界, 建治沿革, 官號沿革, 屬縣, 鎮管, 屬任, 人吏奴婢, 邑名, 姓氏, 風俗, 山川, 勝地, 土產, 城郭, 關防, 烽燧, 宮室, 倉庫, 學校, 驛院, 橋梁, 祠廟, 陵墓, 祈雨所 등 26항목.

권2 : 佛宇, 古蹟, 戴, 戶口, 軍額, 田結, 堤堰, 各坊, 各同, 名宦, 人物 등 11항목.

권3 : 寓居, 科目, 蔭仕, 孝行, 友愛, 忠義, 貞烈, 伎藝, 書籍, 題詠, 雜著補遺, 異聞 등 12항목.

각 권의 항목을 범주화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권1은 역사 행정 군사와 관련된 내용, 권2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 권3은 인물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수에 있어서 『승람』과 비교하여 약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데, 예컨대 『승람』에서의 《名宦》《人物》《寓居》《孝子》《烈女》 등 인물 관련 항목은 《名宦》《人物》《寓居》《科目》《蔭仕》《孝行》《友愛》《忠義》《貞烈》《伎藝》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리 구성되어 있다. 또한 《辰韓紀》《新羅紀》등이 추가된 점도 특징적이다. 《진한기》에는 경상도가 본래 진한 땅이었음을 언급하고, 《신라기》에서는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운 이후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本紀 형식을 취하여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주가 신라 고도였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경주의 역사적 연원을 탐구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경주 지역의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로 파악된다. 즉, 『동경잡기』의 체제는 『승람』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함으로써 편폭을 확대시킨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은 한시가 수록된 항목을 가리킨다.

2. 한시 수록 현황

『동경잡기』내 모든 항목에 한시가 수록된 것은 아니며, 《산천》《승지》《성곽》《궁실》《학교》《역원》《능묘》《불우》등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나, 《풍속》《우거》등 土風 民俗 혹은 인물 관련 조항에 부분

적으로 삽입되어 있고, 《제영》에는 특정 공간이 아닌, 경주 지역 전체를 음영 대상으로 한 작품이 일괄 수록되어 있다. 그 외 조항에 부분적으로 한 시가 수록된 바가 없지 않으나, 전해 내려오는 일화를 옮겨 실는 과정에서 작자 미상의 일부 시구가 삽입된 경우가 확인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일화 속 인용 작품이 아닌, 작자가 명시된 작품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즉, 총 13개 조항에 수록된 한시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수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권수/항목		음영대상	작가(생몰년)	비고 5)
권1	風俗	舞劍之戲	崔致遠(857 - ?)	○
		金鰲山	顧 雲(唐)	○
	山川	蛟 川	金克己(1379-1463)	○
		獨樂堂	李好閔(1553-1634), 柳成龍(1542-1607), 張顯光(1554-1637), 李安訥(1571-1637).	×
	勝地	養眞庵	魚得江(1470-1550), 李彥迪(1491-1553), 趙 綱(1586-1669)	×
		六宜堂	鄭文翼(1571-1639), 全 湜(1563-1642), 全克恒(1590-1636)	×
	城郭	月 城	李仁老(1152-1220)	○
	宮室	客 館	李好閔(1553-1634), 李安訥(1571-1637), 李敏求(1589-1670)	×
		倚風樓	李 穀(1298-1351), 李達衷(1309-1384)	×
		利見臺	李文和(1358-1414)	○
	學校	西岳書院	李 楨(1512-1571), 李 滉(1501-1570), 鄭宗榮(1513-1589), 金誠一(1538-1593)	×
		玉山書院	李安訥(1571-1637).	×
	驛院	阿火驛	金克己(1379-1463)	○
		仍甫驛	金克己(1379-1463)	○
		牟梁驛	金克己(1379-1463), 鄭以吾(1347-1434), 趙 浚(1346-1405)	○
	陵墓	太宗武烈王陵	曹 偉(1454-1503)	○
권2	佛宇	芬皇寺	金克己(1379-1463)	○

권3		佛國寺	金宗直(1431-1492), 金時習(1435-1493)	×
		祈林寺	李達夷(1309-1384)	○
		栢栗寺	鄭知常(1068-1135), 朴孝修(? -1337)	○
		茸長寺	金時習(1435-1493)	×
	古蹟	鮑石亭	李仁老(1152-1220), 曹 偉(1454-1503)	○
		瞻星臺	安 軸(1287-1348), 鄭夢周(1337-1392), 曹 偉(1454-1503)	○
		月明巷	李齊賢(1287-1367), 李 詹(1345-1405)	○
		悅朴嶺	嘯花驚(고 려)	○
		玉 笛	朴元亨(1411-1469), 李石亨(1415-1477)	○
		月精橋	金克己(1379-1463)	○
		天官寺	李公升(1099-1183)	○
		黃龍寺	金克己(1379-1463)	○
		梅月堂	金時習(1435-1493)	×
	寓居	安置民	李奎報(1168-1241)	○
		金時習	金時習(1435-1493)	×
	題詠	경주전체	金君綏(?), 張 鎰(1207-1276), 閔思平(1295-1359), 李達夷(1309-1385), 鄭 樞(1333-1382), 李元紘(?), 金九容(1338-1384), 權 近(1352-1409), 金 鉉(?), 朴元亨(1411-1469), 成 侃(1427-1456), 尹子雲(1416-1478), 鄭孝常(1432-1481), 盧 盼(1437-1478), 崔淑精(1433-1480), 金 淡(1416-1464), 朴文祐(?), 徐居正(1420-1488), 魚世謙(1430-1500), 金宗直(1431-1492), 俞好仁(1444-1494)	○
	雜著	경주전체	金時習(1435-1493)	×
	補遺	옥산리	朴啓賢(1524-1580)	×

《風俗》《山川》《勝地》《城郭》《宮室》《學校》《驛院》《陵墓》《佛宇》《古蹟》《寓居》《題詠》《雜著補遺》등 13항목에 한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제영》에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풍속》과 《우거》를

5) 『승람』에서의 수록 여부를 의미한다.

제외한 모든 조항에는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읊은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읍지가 기본적으로 지리지의 성격이 짙은 데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승람』의 체재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작품 또한 그대로 옮겨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나, 《승지》 《궁실》 《학교》 《잡저보유》 등에는 『승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한시가 추가되어 있다.

한시 수록 현황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작가와 관련한 부분이다. 김극기(8)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 김시습(4), 조위(3), 이안눌(3), 그리고 이언적·이인로·이호민·이황·전식·정문익·이달충·유성룡 등의 작품이 각각 2편씩 수록되어 있으며, 그 외 인물은 1편씩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국적 관련해서는 당나라 고운의 작품이 한 편, 신라 최치원에서부터, 고려 이세현·이곡·김극기·정몽주, 조선초 김종직·어득강·이언적·이황·유성룡·이호민·이안눌·이민구 등에 이르기까지 작가군의 시대 분포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경잡기』에서만 확인되는 작품의 작가군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인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가운데 김시습의 작품이 다양한 조항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작품과 관련해서는, 본문 전체를 수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장편일 경우 일부 만을 절취하여 수록해두었고, 제목 없이 원문만 수록하되 작가명을 명시해두었다.⁶⁾ 하나의 조항에 여러 편의 작품이 수록된 경우에는, 최초작 元韻을 중심으로 이후 和次韻作이 함께 수록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제영》과 《잡저보유》에는 특정 유적(건물)이 아닌 경주 전체 혹은 특정 지역에 대한 연작시가 수록되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에서 언급했듯 『동경잡기』에서만 확인 가능한 한시는 모두 조선조 작품이라는 점이다. 1530년 간행된 『승람』에는 서거정 이전에 지어진 한시가 수록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경주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을 두루 수용하지 못했지만, 1669년 간행 『동경잡기』에는 간행 시점을

6) 해당 작품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문집이 존재하지 않는 작가의 경우 『승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전후로 보다 많은 작품을 수록함으로써 신라시대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주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다. 즉, 『승람』에도 수록된 작품은 신라 혹은 고려시대 경주의 모습을, 『동경잡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조선시대 경주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적공간으로서의 경주를 신라·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양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詩的 공간으로서의 慶州

1. 신라·고려시대의 경주

『동경잡기』내 수록된 절반 이상의 한시는 신라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동경잡기』가 《辰韓紀》《新羅紀》등 신라에 대한 역사를 왕조별로 따로 작성해 놓은 것에서 가늠할 수 있듯, 신라 古都였던 경주의 지난 역사와 지역적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읍지라는 점에 기인한다. 지난 왕조에 대한 회고를 통해 망국에 대한 회한과 지난 역사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고도로서 변화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새로운 부흥을 염원하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하고, 찬란했던 신라 역사 뿐만이 아니라 박제상과 치술령, 낭산과 백결선생, 금오산과 김시습 등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전설적 공간을 대상으로 역사를 기술하듯 노래하고 있다.

공간 중심으로 작품을 분류해보면, ① 古都와 관련한 왕의 공간 및 관청(월성, 의풍루, 이견대, 태종무열왕릉), ② 사찰·고적과 관련한 공간(분황사, 불국사, 기림사, 백률사, 용장사, 황룡사, 포석정, 첨성대, 월정교), ③ 신화 전설 속 인물과 관련한 공간(열박령과 박제상, 금오산과 김시습, 문천과 최치원, 천관사와 김유신, 처용과 월명향), ④ 역원을 중심으로 한 공간(아화역, 잉보역, 모량역) 등 네 가지로 대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문학생성 공간으

로서 경주 유적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항목	음영대상- 작가명	
산천	金鰲山- 고운	蚊 川- 김극기
성곽	月 城- 이인로	
궁실	倚風樓- 이곡, 이달충	利見臺- 이문화
역원	阿火驛- 김극기	仍甫驛- 김극기
	牟梁驛- 김극기, 정이오, 조준	
능묘	太宗武烈王陵- 조위	
불우	芬皇寺- 김극기	佛國寺- 김종직, 김시습
	祈林寺- 이달충	栢栗寺- 정지상, 박효수
고적	鮑石亭- 이인로, 조위	瞻星臺- 안축, 정몽주, 조위
	月明巷- 이세현, 이침	悅朴嶺- 전화영
	玉 笛- 박원형, 이석형	月精橋- 김극기
	天官寺- 이공승	皇龍寺- 김극기
제영	경주전체 - 김군수 외 20명	

알려진 바와 같이 최치원과 경주와의 인연은 깊다. 경주 최씨는 최치원을 시조로 하며 그는 沙梁部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와 관련된 대표적 유적으로 讀書堂 上書莊 등이 있는데, 독서당은 낭산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그가 독서한 곳이며, 상서장은 894년 진성여왕에게 문란한 정치 기강을 바로 잡고자 時務10조를 작성하여 올렸던 곳이다.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이후 7년만에 과거에 합격하였고, 28세에 귀국을 한 이래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맡았지만, 결국 위태로운 시국을 만나 불우한 신세를 한탄하며 더 이상 벼슬하지 않았다. 당나라 유학 시절 함께 학문을 했던 顧雲이 최치원이 귀국할 즈음 다음의 시를 지어 송별해주었다.

我聞海上三金鰲 내 듣건대 바다 위 세 쌍의 황금 자라
 金鰲頭戴山高高 황금 자라 머리 위에 높고 높은 산 이고있네
 山之上兮珠宮貝闕黃金殿 산 위에는 주궁패궐 황금 궁전이요
 山之下兮千里萬里之洪濤 산 아래엔 천리만리 넓은 바다라네

傍邊一點鷄林碧	그 옆에 푸른 한 점 계림이 있으니
龍山孕秀生奇特	금오산 빼어난 기운 뛰어난 인물 내었네
十二乘船渡海來	12세에 배 타고 바다건너와
文章感動中華國	문장으로 중국을 감동시켰네
十八橫行戰詞苑	18세에 횡행하며 문단에서 재주겨루어
一箭射破金門策	한 번의 화살로 과거에 급제하였네.

위 작품은 《산천》 ‘금오산’ 조항에 수록되어 있으며, 『三國史記』卷46 〈崔致遠列傳〉에도 실려있다. 금오산은 남산의 별칭으로 한 마리의 금 거북 [金鰲]이 경주 벌 깊숙이 들어와 앉은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최치원은 경주 南山, 剛州의 氷山, 함천 청량사, 지리산의 쌍계사, 合浦의 月影臺 등 자연을 벗삼아 일생을 보내다가 말년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하며 삶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타국인의 작품을 통해 당나라에서 文名을 떨친 최치원이 경주 출신 인물임을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로 수록한 작품인 듯 하다.

도당산 서쪽 기슭 현재 校洞에는 김유신이 사랑하던 여인 天官을 위해 지어준 天官寺가 있었으며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다. 말의 목을 자른 김유신의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화 속 천관과 관련한 문학공간은 여전히 유적으로 남아있다. 김유신을 원망하기 위해 천관이 지은 노래가 바로 고려속요 ‘가시리’라고 전해진다. 고려 중기 이공승이 남긴 <천관사>를 통해 아마 이 시기까지는 사찰이 보존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寺號天官昔有緣	천관이라는 절 이름 예부터 유래있었으니
忽聞經始一悽然	건립한 사연 홀연히 듣고는 슬프기만하네
倚酣公子遊花下 ⁷⁾	다정한 공자는 꽃 속에서 노닐었고
含怨佳人泣馬前	원망 품은 미인은 말 앞에서 눈물 흘렸네
紅鬚有情還識路	말도 정이 있어 도리어 길을 알았는데
蒼頭何罪謾加鞭	하인은 무슨 죄로 부질없이 매를 맞았나
唯餘一曲歌詞妙	오직 남긴 한 곡조 절묘하니

7) 『東文選』卷12 <天官寺>에는 ‘多情公子遊花下’라 되어 있다.

蟾兔同眠萬古傳 달밤에 함께 잠들며 만고에 전하리.

다정한 공자는 ‘김유신’이고 원망품은 미인은 ‘천관’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두 번 다시 천관을 만나지 않겠다는 모친과의 약속을 어긴 김유신은 그런 자신을 원망하며 타고 온 말을 베고 안장을 버린 뒤, 말을 몬 하인을 심하게 매질하였다. 김유신은 환갑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냈다고 전해지는데 16세 화랑이었던 시절 첫사랑이 바로 천관녀라 한다. 김유신과 천관의 사랑이 이야기와 고려속요 가시리의 탄생 일화에 이르기까지 이공승의 위 작품에는 김유신과 관련한 역사적 일화가 담겨져 있다.⁸⁾

불국사는 신라의 대표 사찰이다. 불국사를 창건한 이는 김대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경잡기』에 의하면 그의 탄생 설화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모량리에 사는 어떤 가난한 여인이 아들 대성을 낳았는데 대성은 요절하고 만다. 대성이 죽던 날 밤 신라의 재상 김문량 집에 귀신이 나타나 ‘모량리의 대성을 이제 그대 집에 맡긴다’라 하였고, 이후 김문량의 처가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오른손에 ‘大成’ 두 글자가 새겨진 대쪽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 아이를 김문량 집에서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과 함께 길렀다 하며, 이후 김대성은 불국사를 창건하여 表訓 스님에게 이 두 어머니의 장수를 빌었다고 전해진다.

爲訪招提境	그대 위해 불국사로 찾아오니
松間紫翠重	솔 사이로 겹겹의 푸른 빛 감도네
靑山半邊雨	푸른 산 반쪽에선 비가 내리고
落日上方鐘	지는 해 위쪽엔 종소리 울리네
語與居僧軟	스님과 나눈 담소 부드럽고
杯隨古意濃	술은 옛 정취 따라 무르익네

8) 이외에도 경주에는 김유신 관련 유적으로, 칼로 돌을 자르며 훈련을 했다던 斷石山, 전장에서 오랜만에 돌아와 집 앞의 우물물을 마시고 다시 떠났다는 財買井, 그리고 西岳書院, 朱巖寺 持麥石, 鵲院 등이 전하며, 『승람』에는 수록되지 않은 김유신 가문의 인물 기록이 『동경잡기』에 대거 수록되어 있다.

顏然一榻上 한 상 위에서 술에 만취하니
相對鬢鬢鬆 서로 마주함에 머리털만 듬성듬성

위 작품은 金宗直(1431-1492)이 지은 것으로, 『佔畢齋集』에는 <佛國寺與世蕃話>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김종직은 1465년 그의 나이 35세에 嶺南兵馬評事(경상도평사)로서 監司의 명으로 경주에 들어와 秋丁釋奠初獻官을 역임하였고, 이 해 ‘慶尙道地圖誌’를 찬술하였으며, 1486년에는 『東國輿地勝覽』를 완성하여 발문을 짓는 등 영남지역 지리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 머무는 동안 신라의 역사와 인물 전설 등을 소재로 한 詠史詩나 懷古詩를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東都樂府>⁹⁾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을 통해 불국토를 이상향으로 삼았던 신라 경주의 이미지와 경주 지역 유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김종직을 함께 소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동경잡기』에는 ‘아화역’ ‘잉보역’ ‘문천’ ‘분황사’ ‘월정교’ ‘황룡사’ 등 여러 조항에 김극기의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신라고려시대의 경주를 노래한 작품은, 최치원의 일생과 관련한 경주에서의 삶, 김유신과 천관의 연애담 관련한 가시리의 탄생 일화, <동도악부>창작과 관련한 김종직과 경주와의 인연, 김극기 작품의 대량 수록 등 신라의 유풍과 역사를 회고하는 문학공간으로서의 경주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 지면상 모두 인용할 수 없었지만 이외에도 서거정, 어세겸, 김종직의 연작시를 수록하여 경주의 다양한 공간을 스펙트럼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적 공간으로서의 경주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9) <會蘇曲> <憂息曲> <鵝述嶺> <恒切歌> <陽山歌> <確樂> <黃昌郎> 등 7편으로, 《제영》조항에서도 그 전모를 살펴볼 수 있다.

2. 조선시대의 경주

조선시대의 경주를 노래한 작품을 살펴보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승지》 《궁실》 《학교》 《불우》 《고적》 《잡저보유》 등이다. 이는 『승람』에는 확인되지 않는 한시가 수록된 조항으로, 여기에 수록된 작품을 음영 공간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① 晦齋 李彦迪과 관련한 공간(독락당, 양진암, 옥산서원), ② 김시습 관련 공간(용장사, 매월당), ③ 기타 공간(육의당, 객관, 서악서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공간은 모두 조선시대에 생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작품에서 담아낸 이미지 또한 조선시대의 경주를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목	음영대상- 작가명
승지	獨樂堂 - 이호민, 유성룡, 장현광, 이안눌 등
	養眞庵 - 어득강, 이언적, 조 경 등
	六宜堂 - 정문익, 진 식, 전극항 등
궁실	客 館 - 이호민, 이안눌, 이민구 등
학교	西岳書院 - 이 정, 이 황, 정종영, 김성일 등
	玉山書院 - 이안눌
불우	茸長寺 - 김시습
고적	梅月堂 - 김시습
잡저보유	경주전체 - 김시습
	玉山里 - 박계현

우선 회재와 관련한 공간을 살펴보자. ‘독락당’ ‘양진암’ ‘옥산서원’은 모두 晦齋 李彦迪(1491-1553)과 관련이 깊은 공간이다.¹⁰⁾ 독락당은 회재가 중앙 정계에서 내려와 낙향한 뒤 줄곧 머문 곳으로 옥산정사 안 사랑채의 기능을 하는 곳이고, 양진암은 지금의 溪亭으로 독락당 안 건물로써 보통의 누정과 달리 내부에 감추어져 주인의 초청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다. 그리고 옥산서원은 회재를 배향하는 곳으로 그의 庶孫 求菴 李浚

10) 이곳은 모두 현재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다.

(1540-1623)이 건립을 주도한 서원이다. 그는 옥산서원을 건립하여 독락당이라는 공간을 경제적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준은 경주부윤 혹은 경상도관찰사 등의 정계 인사와 인근 재야 사족들과의 인맥을 넓혀 이렇게 쌓은 공고한 인맥을 바탕으로 독락당 및 양진암(계정) 등 옥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준은 독락당에 남기고 간 문인들의 시문을 선별하여 조부의 문집에다 엮고 현판을 제작하는 등 조부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중 五峯 李好閔(1553-1634)은 1599년 독락당 주인 이준과의 이별에 앞서 한 편의 5언 율시¹¹⁾를 건네주었는데 이후 이곳을 방문한 시인묵객들은 너도나도 오봉의 시에 화차운을 하였다.

人好鳥亦好	사람 좋고 새 또한 좋으니
況乃溪山奇	하물며 아름다운 계산은 어떠하리
山中有閑地	산중에 한적한 곳 있으니
我欲老於斯	내 이 곳에서 늙고 싶네
楊岐良可泣	양기에서 참으로 울었을 것이요
墨絲詎無悲	묵사는 어찌 슬프지 않았으리
永依仁里居	영원히 어진 마을에 살면서
仰承明訓垂	우러러 밝은 가르침 받고싶네
先哲去已遠	선철은 이미 멀리 떠났으니
捨予孰追隨 ¹²⁾	그대 버리고 누구를 따르겠는가

《승지》‘독락당’에 수록된 東岳 李安訥(1571-1637)의 작품이다. 1614년 경주부윤으로 부임한 동악은 양진암(계정)을 방문하여 오봉의 원운에서 사용한 奇 斯 悲 垂 隨 등의 운자에 맞추어 위 시를 이준에게 지어 주었다. 동악

11) “昔過紫玉山，不見泉石奇。泉石不可見，道脈實在斯。斯人又南歸，使我增長悲。鳳臺黃菊開，河岸丹楓垂。吾道亦未晚，匹馬今當隨”으로 운자는 奇 斯 悲 垂 隨이다.

12) 『東岳集』卷11에 <玉山獨樂堂，贈主人李僉知浚，用五峯李相公韻>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은 계정을 중심으로 한 이 곳을 ‘仁里’ ‘閑地’라 칭송하면서, 이준에게 조부의 뜻을 잘 계승하여 후대로까지 잘 경영해나가도록 격려와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임기가 끝나 경주를 떠난 뒤에도 동약 후손들은 계정 주인들과 세교를 돈독히 하면서 이준에 대한 존중을 끊임없이 드러내보였다.¹³⁾

《잡저보유》에는 박계현이 옥산을 중심으로 읊은 16수의 연작시가 수록되어 있다. 박계현은 『회재집』이 간행되던 1567년 당시 경상도관찰사로 재직 중에 회재의 신원을 啓請하면서 諡號를 내리도록 주청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獨樂堂 紫溪 紫玉山 舞鶴山 定慧寺 道德山 華蓋山 養眞庵 觀魚臺 詠歸臺 濯纓臺 澄心臺 洗心臺 獅子庵 龍湫 등 옥산에 자리한 경관을 대상으로 16편의 연작시를 남겼다.¹⁴⁾ 회재는 계정 주변의 산봉우리에 道德山 舞鶴山 華蓋山 紫玉山이란 이름을 각각 붙이고, 계곡의 바위에도 觀魚臺 詠歸臺 濯纓臺 澄心臺 洗心臺란 이름을 붙여 이를 4山 5臺라 명명하여 심신수양에 적극 활용하는가하면 <林居十五詠>이라는 연작시를 지은 바 있는데,¹⁵⁾ 박계현은 이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연작시를 지어 회재를 존송하는 마음을 담아 유학 공간으로서의 옥산을 노래한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회재의 신원을 회복한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경주 지역의 유학 부흥에 심혈을 기울였던 지방관으로서의 박계현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편찬 의도도 함께 엿볼 수 있다.

다음은 김시습과 관련한 공간이다. ‘茸長寺’ ‘梅月堂’등은 모두 그와 관련

13) 실제 이안눌은 경주부윤이라는 권한으로 계정에 각종 경제적 이권 등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최선혜, 「구암 이준의 경주 溪亭 경영과 시문학의 문화공간 형성」, 『Journal of Korean Culture』34,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16, 243-249쪽.

14) 이 작품에 대해 瞻慕堂 林芸(1517-1572), 春塘 吳守盈(1521-1606), 竹牖 吳滂(1540-1617), 尼溪 朴來吾(1713-1785) 등 4인이 차운한 바 있다. 林芸, <仰次朴近思齋紫溪十六絶韻>, 『瞻慕堂集』卷1 : 吳守盈, <次朴監司紫溪洞十六絶>, 『春塘集』卷1 : 吳滂, <次朴監司紫溪十六詠韻>, 『竹牖集』卷1 : 朴來吾, <留院中, 次旁祖灌園公紫溪十六詠韻>, 『尼溪集』卷3.

15) 『晦齋集』卷2에는 <林居十五詠>라는 제목 아래 早春, 暮春, 初夏, 秋聲, 冬初, 悶旱, 喜雨, 感物, 無爲, 觀物, 溪亭, 獨樂, 觀心, 存養, 秋葵 등 15편의 연작시가 수록되어 있다.

한 공간으로, 매월당은 금오산의 매화와 달을 취하여 지은 김시습의 호이자, 그가 머물던 금오산(남산) 용장사의 옛 거처를 가리킨다. 그는 오랜 방랑생활 끝에 신라 승려 伽谿가 창건한 용장사에 들어와 머물렀고 이 곳에서 『金鰲新話』와 같은 역작을 탄생시켰다.

矮屋青氈暖有餘	작은 집 청전에 따스한 온기 남았으니
滿窓梅影月明初	매화 그림자 가득한 창가에 밝은 달 막 떠오르네
挑燈永夜焚香坐	등불심지 돌우는 기나긴 밤 향 피우고 앉아서
閑著人間不見書	인세에서 보지 못한 책 한가하게 저술하노라

위 작품은 『梅月堂詩集』에 <題金鰲新話>라는 제목으로도 수록되어 있으며, 제목으로 보아 『금오신화』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31세가 되던 1465년(세조 11) 금오산에 칩거한 이래 37세까지 근 6년을 경주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민주면이 경주로 부임해오면서 김시습의 맑은 지조와 곧은 충절을 기리고자 지역 사람들과 의논하여 1669년 용장사 곁에 影堂을 건립하여 그의 影幀을 모시고 경주부의 주관 하에 제사를 올렸고, 1878년(고종15)에 부임한 부윤 민창식이 관리 편의를 위하여 기림사로 영당을 옮겼다고 한다.¹⁶⁾ 현재 용장사는 허물어지고 터만 남아 있으며 삼층석탑 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시습의 작품은 이 외에도 <夫子廟><蚊川><南亭><北川金周元公址><天龍寺感舊><大檀院懷古><登東山嶺望海> 등이 《잡저보유》에 수록되어 있다.

客館은 당시 임금의 위패를 모시면서 경주지역을 방문한 외국 사신 및 중앙 관료가 머물렀던 곳이자 친구 관원이 교체될 때 연회가 열렸던 장소이다. 객관은 보통 위패를 모신 正廳과 사신들이 머무는 東軒 西軒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경주 객사는 서헌만 남은 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보존되고 있다.

16) 민주면이 용장사 곁에 매월당 영당을 건립한 뒤 당시 동학사에 있던 김시습의 초상화를 模寫하여 매월당 영당에 봉안하고 스님에게 이를 봉안토록 하였다고 한다. 조철제, 『또다른 경주를 만나다』, 선출판사, 2014, 245-249쪽.

경주의 객관은 경주의 옛 이름을 따 東京館이라 불렀으며 《궁실》 ‘객관’ 조항에는 서거정의 「東軒記」와 함께 이호민 이안눌 이민구의 작품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嶺外鷄林府	고개 밖 계림부에
龍山海上來	금오산이 바다에서 뻗어왔네
一從城北過	한 자락은 성북쪽을 따라 지나고
五見斗西回	다섯 자락은 북두 서쪽을 감도네
紫綬榮堪詔	부윤으로 온 영광 몹시 자랑스러우나
蒼顏老可哀	노쇠한 늙은이의 얼굴은 애처롭네
戀君心更切	임금 그리는 마음 더욱 간절하니
何處望鄉臺	그 어느 곳이 망향대이던가

위 작품은 오봉 이호민이 객사에 남긴 原韻에 이안눌이 차운한 것이다. 『동악집』에는 <영춘현에 대해 3수를 짓되, 현판에 걸린 오봉 이 상공의 금장대 시에 차운하다[題迎春軒三首, 用板上五峯李相公金藏臺韻]>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이른바 ‘영춘현’이란 동악이 객사를 달리 부른 것으로, 문집 내 각주 ‘무술년 겨울, 오봉이 황조 진어사의 접반사로서 경주에 이르렀다(戊戌冬, 五峯以皇朝陳御史接伴使, 來到本府).’를 통해 위 시가 객사에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봉이 접반사의 자격으로 명나라 사신들과 함께 경주 객사에서 머물렀을 때 시문을 남긴 이래,¹⁷⁾ 객관을 방문한 역대 문인들이 오봉의 원운에 次韻한 것이다. 객관이라는 특정 공간에 대한 음영은 아니지만 그 곳에서 남긴 제영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원운과 화차운이 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17) 이 작품은 『동경잡기』와 『五峯集』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한 두 글자의 문자 출입에 차이가 있다. 『오봉집』에 수록된 원운은 다음과 같다. 『五峯集』卷3, <登金藏臺> “千古興王地, 群山鳳舞來, 明朝日南至, 昨夜賊東回, 風月詩仙去, 關河玉笛哀, 平生感舊意, 一嘯強登臺”

이상 조선시대의 경주를 노래한 작품을 통해, 양동 옥산 등 회재 관련 공간에서 이루어진 문인들의 작시 활동, 김시습의 경주 금오산으로의 유람과 경주와의 인연, 객관에 남겨진 역대 문인들의 화차운시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작품 외에도 서악서원 건립을 둘러싼 퇴계 문인들의 활동 관련 작품, 임란 시 의병활동을 한 崔繼宗(1570-1647)의 六宜堂에 대한 경주부윤(정문익·全湜)의 작품 등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詩的 공간으로서의 신라·고려시대의 경주는 신라의 유풍과 역사를 회고하면서 번성하고 화려했던 옛 왕조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 혹은 망국에 대한 회한과 설움 등이 녹아든 ‘신라 고도로서의 역사적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의 경주는 왕조는 달리하지만 전왕조의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이를 김시습의 경주 유람 및 『금오신화』창작과 연결시키면서 ‘문학 생성 공간’, 그리고 회재를 앞세워 양동과 옥산 지역을 소개함으로써 유학 흥성을 염원하는 ‘유교적 공간’ 등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승람』에서 담아내지 못한 조선시대 경주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들로서, 『동경잡기』가 간행되었을 1699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IV. 『東京雜記』에 수록된 한시의 기능과 의미

1. 역사 기록으로서의 한시

읍지의 편찬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지리와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승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선의 17세기는 이전 임병양란을 겪은 뒤 전쟁으로 인한 서적의 몰살을 이미 체험하였던 터 당대 글을 배운 지식인이 라면 기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 간행된 『동경잡기』는 통치자료로서의 목적만큼이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남기고

자 하는 기록의식이 강하게 작동하였고,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보다 생생하게 소개해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해당 공간에 대한 지리적 정보와 함께 한시를 배치함으로써 경주 지역의 산천 사찰 궁실 학교 및 수많은 유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그와 관련한 역사적 일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해내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는 경주 읍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리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나, 『동경잡기』는 특히 경상도 내 다른 읍지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은 수의 한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역사 기록으로써의 기능이 보다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승람』권21~권32 ‘경상도’ 내 《제영》 항목을 기준으로 수록 한시 작품수를 비교해보면¹⁸⁾ <경주부>에 수록된 한시가 가장 많다.¹⁹⁾ 이는 경주가 당시 대읍으로서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였으며, 무엇보다 옛 도읍으로서 명승고적이 많이 남아있어 역대로 관련 문학 작품이 많이 축적될 수 있었던 지역적 특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경잡기』내 한시는 詠史詩 혹은 懷古詩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영》에 삽입된 한시의 문집 내 제목을 살펴보면, 張鑑의 <東都懷古金察訪韻>, 成侃의 <慶州懷古>, 崔淑淸의 <鷄林懷古>라 하여 제목에서 ‘회고’시임을 명시한 것이나, 徐居正과 魚世謙의 <慶州十二詠> 12수, 金宗直의 <東都樂府> 7수, 俞好仁의 <偶閱三國史~作東都雜詠> 5수 등 연작시 형태로 수록된 경우가 모두 그러한 예이다. 예컨대 장일은 ‘4백년 전 장상의 집에서, 누대를 다투어 지어서 그 얼마나 웅장함 자랑했던가. 다만 지금은 그 화려함 누구에게 물으리. 산야에 열린 살구와 복숭아는 꽃이슬에 젖었네.’²⁰⁾라 하였고, 최숙청은 ‘누런 잎에 가을바람 일어나던 그때, 옥적 소리 그치자 왕운이 끝났네. 50대 전하던 성곽은 남았건만, 천 년이 지난 뒤 조시는 비였구나.’²¹⁾라 하는 등 망국으로서의 신라 경주를 회고하는 시인의 시선

18) 한 작가의 연작시인 경우 한 편으로 처리하였다.

19) 권22 <울산군>에 2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평균적으로 4.5편 정도 수록되어 있다.

20) “四百年前將相家，競開臺榭幾雄誇。只今繁麗憑誰問，野杏山桃泣露華”。

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서거정의 연작시는 계림·금오산·포석정·문천·반월성·첨성대·분황사·영묘사·오릉·남정·옥적·김유신묘 등 신라의 대표 유적(유물) 12곳을 대상으로 음영한 것인데, 鷄林靈異(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金鰲奇勝(김생, 최치원), 鮑亭感懷(경순왕), 蚊川騁望(이차돈, 소지왕, 선덕여왕, 황창량), 半月古城(양록, 김알지), 瞻星老臺(선덕여왕), 芬皇廢寺(원효, 솔거), 靈妙舊刹(선덕여왕), 五陵悲弔(박혁거세, 알영, 석탈해, 김알지), 南亭清賞(박혁거세), 聞玉笛聲(진평왕), 過金庾信墓(김유신, 천관녀, 황창량) 등 각각 작품에 제목을 부여함으로써 신라와 관련있는 역사적 인물을 두루 소개하여 영사시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록 한시는 이미지를 제시하는 효과를 아우르고 있다. 예컨대 권1 《山川》‘蚊川’ 조항을 살펴보면, ‘경주 남쪽 5리에 있으며 사등이천의 하류이다[在府南五里, 史等伊川下流].’라는 문구 뒤 김극기의 시와 祓禊詩가 각각 삽입되어 있고, 권1 《승지》‘獨樂堂’ 조항에는 ‘옥산서원 북쪽 한 마장 쯤에 있으며 회재 선생의 별장이다[在玉山書院之北, 一馬場許, 晦齋李先生別墅也].’라는 문구 뒤 오봉 이호민·서애 유성룡·여헌 장형광·동악 이안눌·서애 유성룡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비교적 간략한 지리 정보에다 2수 이상의 한시를 수록하는 것이 기존의 역사적 사료를 인용하는 것보다 해당 공간을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²¹⁾ 즉 단순 나열의 개조식 지리 정보에다 한시를 적절히 인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여 문화 예술 역사적 공간으로써의 고도 신라의 모습을 한 폭의 병풍을 펼쳐 보이는 듯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연작시를 대거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경잡기』내 한시는 역사를 기록하는 한 방식으로써 題畫의 기능을 겸한 詠史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當時黃葉起西風, 玉笛吹殘王氣終. 五十代傳城郭在, 一千年過市朝空. 亭餘鮑石秋蕪綠, 臺兀瞻星夕照紅. 陳迹宛然人去盡, 倚闌無語送飛鴻”.

22) 이러한 사항은 이군선의 「시로 쓴 지방지 『吳洲詩志』(『동방한문학』26, 동방한학회, 2004, 443-466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유교 윤리 보급을 위한 한시

『동경잡기』내 《학교》 조항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²³⁾ 여기에는 ‘鄕校’ ‘西岳書院’ ‘玉山書院’ ‘小學堂’ ‘司馬所’ ‘梅月堂祠宇’ 등 6곳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향교’ 조항의 경우 東廡從享과 西廡從享에 해당하는 역대 우리나라 儒賢을 열거하면서 薛聰·崔致遠·安珣·鄭夢周·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滉·李彥迪 등 우리나라 유학의 도통을 적시하고, 이어 明倫堂의 재건 시기와 과정(1604년 이안눌, 1669년 민주면), 이에 대한 記文 작성(정극후) 내력을 상세하게 서술해두었다. ‘서악서원’ 조항에는 龜巖 李楨과 그의 스승 퇴계 이황과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진 서원건립 내력과 사액·증축 과정(1600년 이시발, 1602년 이시언, 1610년 최기, 1623년 여우길, 1646년 이민환)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옥산서원’ 조항에는 이제민에 의한 옥산서원 건립(1572년)과 사액 시기, ‘매월당사우’ 조항에는 용장사에 이를 건립한 정황 등이 두루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승지》의 ‘독락당’ ‘양진암’ 조항에 수록된 작품과 《잡저보유》의 박계현의 작품은 모두 옥산리에 있는 이언적 관련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된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²⁴⁾

이러한 한시문 선별은 간행 당시 조선 내 유학의 보급과 전파, 그리고 흥성을 염원하는 국가적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다. 『동경잡기』에는 한시 작품 외에도 孝와 烈을 강조하는 유교 윤리와 관련한 내용(권2의 《인물》, 권3의 《孝行》 《友愛》 《忠義》 《貞烈》 등)이 상당수 추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경주 지역 읍지 뿐만이 아니라 17세기 전후로 간행된 사찬 읍지 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시기 간행된 읍지 내에는 이전 시기의 그것

23) 『승람』의 경우 《학교》 항목 내에, ‘향교’와 ‘소학당’ 두 조항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한시는 인용된 바 없다.

24) 이러한 내용 선별은 경주 지역 사람들이 주로 영남 남인 계열이었던 것과 관련이 깊은 듯하다. 『동경잡기』가 간행되던 당시 영남지역은 이언적-이황-유성룡-정경세-김성일-정구-장현광 등으로 이어지는 학맥이 전개되고 있었고, 당시 영남 사람들은 이황 이후 자신들의 학문적 연원을 김종직-손중돈-이언적-이황으로 연결지으면서 회재를 영남학파의 창시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 비교하여 風俗 人物 禮俗 등과 관련된 내용이 대폭 추가되었는데,²⁵⁾ 이러한 현상은 양란을 겪은 이후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화되면서 혈연 중심의 가문을 중시하고 신분의식의 공고화로 지방 사족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조선 사회가 忠·孝·烈 등의 유교 윤리를 피지배층에게 강조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분위기는 기존 《인물》이라는 단조로운 항목에서 벗어나 《孝行》 《忠義》 《貞烈》 등 인물 형상을 구체화하여 부모에 대한 孝行, 나라에 대한 忠情, 남편에 대한 貞烈 등 당대 조선조가 요구했던 성리학적 인간상을 잘 구현해 낸 인물을 구분 수록한 것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²⁶⁾ 최초 사찬 읍지인 『咸州志』 서문에, ‘고을의 姓氏와 고을 내 유명 人物, 이 곳에 寓居했거나 流配은 사람들에 대해 이미 지난 시대의 선행과 지금의 행실 등을 자세히 갖추어 신중하게 기록하지 않음이 없으니, 읍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또한 어찌하겠는가?’²⁷⁾라 하였듯, 지역민의 감발을 염두에 두고 三綱과 관련한 내용을 읍지에 채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 그리고 가부장제의 확대 보급 등과 맥락이 닿아있는데 『동경잡기』의 간행을 주도했던 민주면 관련 기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은 경주가 옛 도읍지로서 忠孝와 節義, 민요와 풍습 가운데 계승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문헌이 부족하여 장차 사라질 것이라 여겨, 마침내 자료를 수집하고 採訪하여 『동경지』 3권을 편찬하였다.²⁸⁾

明齋 尹拯(1629-1714)이 경주부윤 민주면을 대상으로 작성한 墓誌銘 일부이다. 민주면이 부임하기 전 당시 경주는 水土가 좋지 못해 통치가 힘들고

25)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체재와 특징」, 『인문과학논집』 4,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220쪽.

26) 양보경의 위의 논문, 221쪽.

27) 鄭述, <咸州志序>, 『寒岡集』 卷10, “而姓氏焉, 人物焉, 寓民也, 流配也, 既往之善, 見今之行, 莫不詳具而謹書之, 邑人於此, 其又何如哉.”

28) 尹拯, <廣州府尹閔公墓誌銘>, 『明齋遺稿』 卷36, “公以故都忠孝節義, 土謠民風, 多有可述者, 而文獻不足, 將未免泯滅, 遂哀集採訪, 纂東京志三卷.”

흥년이 들어 거주민들이 피폐해져 있는데다 이해관계에 따른 訟事가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다들 부임지로 꺼려하는 지역 중 하나였던 것 같다.²⁹⁾ 그러나 민주면은 경주로의 부임을 단행하였고 부임하자마자 경주민들의 충효 절의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들을 모아 후대로의 계승을 기약하여 『동경잡기』 편찬을 감행하게 된다.

17세기 조선 전역에 유교 이데올로기가 강화됨으로써 중앙에서는 지방 사족들에게 이를 보급 전파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당시 읍지의 기록은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읍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곧 글을 아는 식자층, 즉 해당 지역의 사족들이었다. 중앙에서는 지역민들의 사고와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지역 내 엘리트 사족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했다. 그 중간적 위치에 있는 지방관들은 유교 이데올로기를 지방 사회에 확대 보급시켜 일반 평민들을 교화시키는 한편, 지방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관들은 해당 부임지에서 읍지 편찬을 통해 지역 내 사람들을 결집시킴과 동시에 당대 유학 흥성을 염원하는 편찬 주체자의 공적 염원을 실현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경잡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찬 읍지는 지방 재지 사족 세력의 성장과 이들이 주도하는 향약 보급 등과 같은 성리학적 향촌 질서의 확보를 위해 편찬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지 사족들은 자기 지역의 풍속을 교화하고 성리학적 명분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되었다.

3. 在地士族의 주관이 개입된 한시

읍지는 기본적으로 관찬 지리지에 각 지방에 대한 기록이 매우 간략하여 해당 지역의 특색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지역 통치에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수록하여 이후 부임하는 지방관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

29) 尹拯, <廣州府尹閔公墓誌銘>, 『明齋遺稿』卷36, “慶之水土不佳, 人或勸公毋行, 公笑曰, 以我爲學巧宦者耶, 況分義所在, 何敢擇燥濕乎, 慶素號大府, 加以歲累不登, 吏民凋瘵.”

지, 그리고 자료 기록의 필요성과 후대로의 전수를 위해 편찬된 경우가 많았다. 즉 해당 지역 官民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읍지는 지방관의 지지에 힘입어 지역 사족 세력이 주관하여 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읍지 편찬에 간행 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았고, 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구체적인 항목 설정이나 내용의 가감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민주면이 경주에 부임했을 당시 普門坪 경작권을 두고 지역 사족들과 경작자[驛吏]간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면은 이 때 재지 사족들의 편에서 『동경잡기』를 간행하게 되면서 그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내용을 선별하게 된다.³⁰⁾ 당시 경주지역의 사족들은 북부지역 강동(양동)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회재의 손자 無忝堂 李宜潤(1564-1597)을 비롯한 이 지역 사립들은 회재 이후 퇴계로의 계승을 염두에 둔 旅軒 張顯光(1554-1637)을 스승으로 하는 학맥을 구축하고 있었다. 여헌은 임란 이후 竹長 立巖에 거주하면서 경주 북부와 영천 지역 인사들과 교류를 한 이래, 이 지역에 여헌의 문인들이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³¹⁾ 여헌은 寒岡 鄭述의 지리지 편찬에 힘입어 경상도 지역의 사찬 읍지 간행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³²⁾ 그가 독자적으로 간행을 주도한 지리지는 없지만, 의성현감 재직

30) 『동경잡기』간행 및 보문평 경작권 다툼 관련해서는, 조철제의 「조선시대 경주의 五里藪와 普門坪 小考」(『신라학연구』4,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2000, 253-285쪽)와 『동경잡기』의 편찬동기와 속간」(『국역 동경잡기』, 민속원, 2014, 448-467쪽) 참조.

31) 경주와 영천은 한려학과의 교차지대라 할 만큼 이들 문인이 병존하고 있었고 한강 사후 여헌학과의 확산세가 가속화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김학수의 「<봉산육행록>을 통해 본 한강학과의 인적기반」(한강학연구원·경북대 퇴계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발표문, 2016) 참고.

32) 현존하는 최초 사찬 읍지 『함주지』는 한강 정구가 함안군수로 부임했을 때 간행한 것으로, 이후 다른 지방의 읍지 간행의 표본이 되었다.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민족문화』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 김학수, 「17세기 한려학과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10 : 최원석, 「여헌 장현광의 지리인식과 문인들의지리지 편찬 의의」, 『동양고전연구』49, 동양고전학회, 2012.

시 읍지 중수에 관심을 드러내었고 자신의 문인들에게 끊임없이 읍지 편찬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申悅道에게는 李民寯, 安應昌과 함께 의성지역의 읍지 『聞韶誌』를 편찬토록 하였고, 金輅 呂燦 李道長 등을 통해 성주 지역의 『京山志』를, 權應生과 鄭克後 등에게는 『동경잡기』의 편찬을 권하였던 것이다.

『동경지』편찬에 있어 아직 淨書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 고을의 선비들이 멀리서 찾아오니 그 뜻은 진중하였지만, 다만 노쇠하고 몽매한 내가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니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일전에 마침 새로 부임한 부윤이 내게 방문하여 잘 조치해서 반드시 제때에 일을 마치게 해 줄 것을 거듭 부탁하였으니, 반드시 데면데면하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³³⁾

위 글은 여헌이 권응생(1571-1647)에게 보낸 답서 중 일부이다. 권응생은 당시 안강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강과 여헌 모두에게서 배운 인물 중 한 명이다. 여헌에게 당시 경주지역 인사들과 부윤이 찾아와 읍지 간행을 재촉하며 시일 내 완성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노쇠하여 여력이 없었던 그는 지방 풍속과 역사에 관심이 많은 두 제자 권응생과 鄭克後(1577-1658)에게 편찬을 일임하였다. 특히 정극후는 만년에 안강 하곡에 은거하면서 薛聰 金庾信 崔致遠의 사적과 서악서원의 건립 시말 등을 정리하여 『西岳志』를 남겼을 정도로 경주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여헌 문인을 중심으로 한 『동경잡기』 간행 의사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다. 여헌이 옥산서원 사립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경지』의 저술은 과연 지금 하여야 하니 지금 저술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근거하여 찾아볼만한 것이 더욱 없을 것입니다.”³⁴⁾라 하여 서둘러 편찬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에서 실제 간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동경잡기』가 간행된 것은 1669년이지만, 권응생은 1647년, 정극

33) 張顯光, <答權命世>, 『旅軒集』續集 卷2, “且聞東京志之撰, 時未入正書……府儒遠來, 其意珍重, 但老昏無以應謬求, 慚謝慚謝, 日前適值新令尹歷顧, 仍請施措, 須令及時畢業, 想必不爲泛視”

34) 張顯光, <答玉山書院>, 『旅軒集』續集 卷2.

후는 1658년에 사망하였던 사정이 이를 말해준다. 즉, 여헌 문인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사료의 수집과 내용 선별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민주면 부임 이후 북부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간행을 착수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재차 내용을 선별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동경잡기』(1669년 刊)에는 정극후와 관련한 기록(《인물》조항. <鄉校松壇記>, <萬歸亭記>)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는 한시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승지》《학교》《잡저보유》《불우》《고적》 등에 추가된 작가 명단을 살펴보면, 과거 경주와 관련한 역사적 일화가 있거나 당대 경주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 경주에서 6년간 머물며 『금오신화』를 저술한 김시습, 역대 경주부윤 혹은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했거나 이 지역으로 사신 파견된 관료 가운데 題詠을 남겼던 인물이라든지, 양동과 옥산을 중심으로 한 회재 집안(여주 이씨, 경주 손씨),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여헌 문인 및 경주 최씨 등 당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사족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던 인물군 등의 작품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경주부윤을 역임한 김안로(1518)·이정(1560)·이안눌(1613)·정문익(1629)·전식(1631),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했던 박효수(1316)·김종직(1465)·손중돈(1516)·김안국(1517)·이언적(1543)·정종영(1562)·박계현(1567)·유성룡(1583)·김성일(1592)·이민구(1624) 등의 인물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³⁵⁾ 공무상 경주를 방문한 관리들은 이 지역 내 인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인맥을 형성했다. 전식은 유성룡과 장현광의 문인으로써 경주부윤으로 와서 회재 후손 李塚를 손녀사위로 맞이하는가하면, 조정 전직 전극항 등은 장현광 정경세 이준 등에게서 수학한 인물이며, 이안눌은 회재의 서손 이준에게 독락당 경영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부임해온 관료와 재지 사족들은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였다. 게다가 민주면과 함께 간행을

35) 괄호안은 도입날짜이다. 박효수 당시에는 경상도체찰사라 불리웠고, 김종직은 嶺南兵馬評事를 역임하였다. 이상의 정보는 『경주선생안』(조철제 역, 경주문화원, 2001)을 참고.

도모했었던 李塚와 金建準는 각각 이언적의 玄孫 및 金叔滋(1389-1456)의 후손으로써 영남 남인 계열 사족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읍지라는 것이 이후 부임하는 관리의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찬 당시 관료들과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는 읍지의 내용 선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동경잡기』의 간행은 부윤 민주면과 경주 북부지역 사족을 중심으로 내용의 가감과 작품의 선별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역대 부윤 및 관찰사 등이 남긴 제영과 회재 후손 및 여현 문인들의 작품을 수록함으로써 『동경잡기』의 권위와 편찬의 정당성을 두루 확보할 수 있었다. 경주 지역의 정체성과 학문적 자부심 등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동경잡기』에 담아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시문 선별에 있어 고을 지배층을 염두에 두고 작가군을 설정한 사실 이면에는, 재지 세력의 현양을 위해 『동경잡기』가 편찬되었던 저간의 사정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V. 남은 문제

본고에서는 『동경잡기』에 수록된 한시를 대상으로 詩의공간으로서의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신라·고려 및 조선시대로 양분하여 살펴보고, 『동경잡기』 간행 당시 경주지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통해 수록된 한시의 기능과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유교 윤리의 전파와 재지 세력의 현양과 관련한 읍지 간행 사실은 기존의 지리학·역사학계 논의를 일부 흡수한 것이지만, 이를 근거로 사찬 읍지 간행에서의 한시문 선별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간행주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낸 것은 필자의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첫 번째, 경주에서 간행된 여러 종의 읍지 수록 내용에 대한 비교 탐색이다. 『동경잡기』 간행 이후 1745년에 전국 지리지 총서 간행을 위해 왕명에 의해 『경

주부읍지』가 간행되었고 1930년대에는 『동경통지』『경주읍지』『금오승람』 등 세 종의 읍지가 간행되었으며,³⁶⁾ 1940년에는 『嶠南誌』가 속간되는 등 조선 후기에서 일제시기에 이르기까지 경주 내 읍지 간행이 지속되었다. 경주라는 같은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간행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의 가감 혹은 출입, 동일 내용의 변개 여부 등 간행 시대 및 편찬 배경 등을 고려한 수록 내용 비교는 사찬 읍지 간행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일례로 1930년대 세 종의 읍지 간행은, 당시 경주 지역 내 특정 문중간의 명분과 사안이 복잡하게 얽혔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고,³⁷⁾ 일제시기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당시 읍지가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소산물이자 경주지역 관광책자로 활용되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³⁸⁾

두 번째, 전통시대 한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한시는 대개 문학의 한 장르로서 그 어느 장르보다 서정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것이 놓이는 맥락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동일한 작품이 시선집에 수록되었을 때와 읍지에 수록되어 있을 때에는 각기 다른 시각과 분석이 필요하다. 시선집의 경우 문학 작품의 하나로서 편찬자의 詩觀과 당대 學詩배경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지만, 읍지에서는 문학작품이기보다 기록의 한 방식으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편찬 주체자의 간행 목적과 배경을 함께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시는 전통시대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다양한 시·공간에서 삶을 기록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이에 문학으로서가 아닌 당대 한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 번째, 경상도 읍지 간행 주체와 수록 내용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탐

36) 『경주부읍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장정 및 글쓰기가 매우 정교하여 왕명에 의해 편찬되어 진헌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조철제 역, 『국역 경주읍지』, 경주문화원, 2003.

37) 이와 관련해서는 조철제의 앞의 저서(2003) 참조.

3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서 2016년 개최한 콜로키움에서 정재훈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조선시대의 경주 인식’ 자료집 참고.

색이다. 본고에서는 경주 읍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를 경상도 읍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6, 17세기 간행된 것으로 전하는 16종의 경상도 읍지 가운데 현전하는 10종의 읍지³⁹⁾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사족들과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읍지 간행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 읍지의 내용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에서 배태된 다양한 정치적 이야기가 읍지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방 통치와 관련한 당대 성리학적 이념이 읍지 속에 오롯이 베어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읍지 내용 선정에 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읍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한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에 대한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과 연계한 한문학 연구로써, 이 때 사학 철학은 물론 지리학 서지학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등 각종 인문 사회학을 두루 바라볼 수 있는 융통성있는 시각과 태도가 요구된다. 학제적 연구와 융합학문을 통해 분과학문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자 스스로도 자신의 전공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이론과 사회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결국 이는 지역학과 한문학을 연계시키는 방법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문학에서의 지역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공간이 지닌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시대에 따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⁴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한문학연구

39) 鄭述의 함안『咸州誌』, 權紀의 안동『永嘉誌』(1602), 李堧의 상주『尙山誌』(1617) 및 선산『一善誌』(1630), 成汝臣 등의 진주『晉陽志』(1632), 金世濂의 현풍『苞山志』(1635), 申翬全의 밀양『密陽誌』(1652), 鄭秀民의 함양『天嶺誌』(1656), 李重慶의 청도『鰲山誌』(1677), 李元禎의 성주『星山誌』(1677), 민주면의 경주『東陵잡기』(1669) 등이 그것이다. 양보경, 「지리지의 나라 조선」(『지리지의 나라 조선』, 국립중앙도서관, 2016) 참조.

40) 지역은 그 지역을 이루는 물리적 배경으로서의 공간, 삶의 주체인 인간, 인간집단으로서의 사회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지역 자체는 하나의 실체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구성물로 존재하는 인식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남송우, 「지역문학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성의 양상」, 『한국문학논총』 50,

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두루 수용하되, 이를 실증하는 방법론과 연구자의 깊은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11월 1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한국문화학회, 2008 : 심영의, 「영·호남 지역문학에서 주체와 타자의 인식 연구」, 『남도 문화연구』2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5 :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출판부, 2003 등 참고.

참고문헌

-저서-

- 국립중앙도서관 편, 『지리지의 나라 조선』, 국립중앙도서관, 2016.
박 주,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16.
조동일, 『지방문화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조철제 역, 『국역 경주읍지』, 경주문화원, 2003.
조철제 역, 『국역 경주선생안』, 경주문화원, 2002.
조철제 역, 『국역 동경잡기』, 민속원, 2014.
조철제, 『또다른 경주를 만나다』, 선출판사, 2014.
황재현 역, 『국역 동경통지』, 경주문화원, 1990.

-논문-

-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민족문화』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김학수, 「17세기 여헌학과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10.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의식-17세기 한려학인을 중심으로」, 『영남학』18,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0.
김학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문인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40,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0.
남송우, 「지역문학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성의 양상」, 『한국문학논총』50, 한국문학회, 2008.
노재현,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의 의미와 폐허미학적 소통방식」, 『한국조경학회지』39(2), 한국조경학회, 2009.
부영근, 「경주읍지 고찰」, 『동양한문학연구』39, 동양한문학회, 2014.
신상구 외, 「누정건축공간과 누정시 연구 방법론 모색-경주 독락당 계정과 회재의 林居十五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58, 어문연구학회, 2008.
심영의, 「영·호남 지역문학에서 주체와 타자의 인식 연구」, 『남도문화연구』28,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5.

- 양보경 외, 「일제 식민지 강점기 읍지의 편찬과 그 특징」, 『응용지리』22, 성신여대 한국지리연구소, 2001.
- 양보경, 「16~17세기 읍지의 편찬배경과 그 성격」, 『조선후기논문선집』41(정치9), 한국인문과학원, 1997.
-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체제와 특징」, 『인문과학논집』4,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 유부현, 「『동경잡기』의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연구』7, 한국서지학회, 1991.
- 이군선, 「시로 쓴 지방지 『吳洲詩志』」, 『동방한문학』26, 동방한문학회, 2004.
- 이수건 외, 「조선후기 경주지역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민족문화논총』1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4.
- 이수환, 「이연적 문학의 창작현장과 유적」, 『대동한문학』29, 대동한문학회, 2008.
- 이재두, 「1635년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편찬」, 『퇴계학과유교문화』58,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6.
- 정우락,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에 대한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 정재훈, 「한강 정구에 관한 한국사 분야의 연구 회고와 전망」, 『영남학』2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4.
-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2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 조철제, 「경주선생안의 내용분석과 전래경위」, 『신라학연구』6,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2002.
- 조철제, 「조선시대 경주의 오리수와 보문평 소고」, 『신라학연구』4,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2000.
- 최선희, 「구암 이준의 경주 溪亭 경영과 시문학의 문화공간 형성」, 『Journal of Korean Culture』3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 최원석, 「여헌 장형광의 지리인식과 문인들의 지지편찬 의의」, 『동양고전연구』49, 동양고전학회, 2012.

Gyeongju(慶州) as a Poetic Space and 『Dongyeongjapgi(東京雜記)』

Lee, Mi-jin

This paper examined images of Gyeongju as a poetic space through Chinese poems registered in 『Dongyeongjapgi(東京雜記)』, a representative local journal published in the 17 century and considered Chinese poems' functions and meanings. The 『Dongyeongjapgi』 published by Gyeongjubuyun Minjumyeon(閔周冕) and residents in Gyeongju province in about 1669, It covers all kinds of information about Gyeongju before and after the publication in the Silla era and consists of a total of 3 volumes and 49 items. In 13 items of all 49 items, Chinese poems are cited, and the largest number of volumes was registered in <Jeyeong(題詠)> item among them. These works can be largely into works describing Gyeongju in the Silla and the Goryeo era and the others representing it in the Joseon era. The former is described as an 'ancient city in Silla, the historical space' in which retrospect of Silla's Yupung and history and yearning for old dynasty or regret for the ruin of country, while the latter is described as a 'Confucian space' for prosperity of confucianism, by introducing the 'space for literature creation' related with Kim Siseup(金時習)'s Gyeongju travel and creation of 『Gueum-osinhwa(金鰲新話)』 and the other space of Hoihae(晦齋) Lee Yeonjeok(李彦迪). The functions and

meanings of Chinese poems registered can be summarized: First, they function as a historical recording method. It functions as Yeongsa and Jehwa, by properly citing Chinese poems and a simple array of geographic information and providing visual images. Second, many Chinese poems were registered for spreading Confucian ethics. A lot of works created around Hanggyo and Seowon were registered, in the same context of spread and distribution of Confucianism, a domestic ideology of the Joseon era. Third, the subjectivity of Jajisajok who lived in the Gyeongju province was strongly reflected in the selection of Chinese poem sentences. Some works of figures who had relationships with Buyun who initiated the publication and local Sajoks, powerful forces at that time were often collected, since they usually regulated and selected contents of them. Therefore, it can be found that contents registered in Sachan Eupji in the Joseon era are never objective and mainly consist of various political stories created from interests around specific forces.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necessity to re-consider various functions of Chinese poems in the traditional level, other than the literary perspective.

key words : 『Dongyeongjapgi(東京雜記)』, Gyeongju(慶州), Min-jumyeon(閔周冕), 『新增東國輿地勝覽』, Chronicle, geographical book, Gyeongsang Province(慶尙道), Local Elites

